

의 연수를 부탁하였더니 쾌히 승낙하여 주었으며 벽용시험로의 설계도를 보여 주면서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 주었다.

방문기관별로 자료조사가 끝날 때마다 전무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는데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하여 주요인사를 초청하여 주연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유쾌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보탬이 되었다.

공식 일정을 모두 끝내고 나니 긴장감이 풀려서 그런지 한꺼번에 피로가 오는 것 같았다. 20여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으나 많은 것을 보고 배웠으며 특히 적게는 20여년 많게는 50여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들 기관들이 수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오늘과 같은 훌륭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시험연구기관으로 성장한 것을 생각하여 볼 때 일조일석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우리의 방재시험소도 이들 기관에 못지 않는 훌륭한 시험연구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美國 ISP 研修記

南 香 祐

〈本協會 業務部・主師〉

우리 海外研修團 31名은 대한항공편으로 美國의 先進保險을 배우기 위해 트랩에 올랐다.

1876년에 設立된 IEA(Insurance Educational Association)가 主管하는 太平洋 연안 국가들을 위한 保險學校 즉, ISP-KOREA(Insurance School of the Pacific) 제 1 기생의 資格으로 教

育을 받게 된 것이다. 원래 ISP는 日本에서 數年前 부터 教育을 받아 오던 研修過程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금년에 처음으로 같은 과정의 研修를 받을 수 있게 문이 열린 것이다.

비행기가 이륙한지 約 9時間後, 하와이 群島 中の 하나인 「오하우」섬 호놀룰루공항에 기착하였다. 5개의 큰 섬으로 구성된 군도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오하우」섬은 政治, 文化, 經濟의 中心地로 美國의 太平洋上의 環關문이었다. 州人口의 83%에 該當하는 約 66萬名이 산다고 한다. 우리에게 一般的으로 잘 알려진 하와이 섬은 호놀룰루에서 제트기로 約 90分이 걸린다고 한다.

진주만의 「유타·애리조나」호가 침몰된 채로 잘 保存되어 있었고, 映畫, 音樂에서 자주 나오는 하와이의 심볼인 「다이아몬드·헤드」, 에머럴드 그린빛의 바다와 야자수가 잘 調和를 이룬 「와이키키」해변, 그러나 원래 「와이키키」해변의 모래는 조개 껍질등이 많아 매년 호주에서 모래를 가져와 뿌린다고 한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유명세에 비하면 실망할 정도로 아주 작은 해변이었다. 年中 香氣 좋은 꽃들이 늘 피어 있고 熱帶性植物들이 싱싱하게 잘 자라는 온후한 기후의 파라다이스였다.

다음날 우리는 最終 目的地인 「로스·엔젤리스」에 도착할 무렵, 창 밖에 보이는 야경은 불야성,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버스를 타고 시내를 본 모습은 평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시끄럽지는 않았다.

교육을 받은 장소는 L.A. 中心街에서 9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넓은 Freeway를 2시간정도 달리면 Irvine市가 나오는데 바로 그곳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우리의 교육 장소였다. 대학교의 강의실과 기숙사를 사용키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좋은 시설을 갖춘 대단히 넓고 아름다운 캠퍼스였다. 여유있게 자리잡은 강의실과 연구실들, 키 큰 정원수와 끝없이 펼쳐져 있는 잔디밭들, 이러한 모든 시설에 대해 우리의 좁

은 공간과 비교를 하면서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 84년 L.A. 올림픽 경기때 이곳 UCI캠퍼스에 있는 구내 테니스 코트에서 테니스 경기가 열린다고 한다. 몇몇 동료와 함께 바로 이 코트에서 테니스 게임을 즐겼다.

教育은 每日 每日 日程表대로 한치의 어김도 없이 午前 9時부터 午後 4時까지 하루 6時間씩 받았다. 강의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이해위주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슬라이드 및 토론에 의한 수준높은 강의였다. 보험상품은 계속 종합보험화 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자동차보험은 높은 이자율과 사업비의 증가로 인한 수익악화로 인수에 신중을 기하고 있었다.

「로스·엔젤리스」는 일년중 12月, 1月 및 2月에만 비가 오고, 그외는 거의 비가 오지 않는 쾌적한 날씨가 계속되는 도시로서 우리 교민이 가장 많이 살며 영화산업과 항공기 산업의 일대 중심지이며 미국 서부의 관문이기도 하다. 어더를 가나 잘 자라고 있는 나무와 잔디는 하루에 두번씩 정확하게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고 있었다. 특히 이곳은 태평양연안을 끼고 있어 「롱」비치, 「산타·모니카」비치, 「헌팅턴」비치, 「뉴·포트」비치, 「라구나」비치등 수많은 해수욕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해변의 수영객은 별로 없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였다. 「롱」비치에는 과거에 화려한 경력을 가진 「퀸·메리」호가 입장료를 받고 관람시켜 주는 폐선으로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풍모는 「윈스턴·처칠」경이 애용했던 그것만큼이나 아직도 당당한 모습이었다. 아랫층은 신혼부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호텔로 사용하고 있었고, 관람은 윗층부분만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날 무렵, 나에게 바보스러운 점의 하나가 노출되었다. 아니, 순수한 한국인입에 틀림이 없음을 재확인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세끼의 식사가 자신으로부터 거부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것이다. 할 수 없이 마켓에서 쌀과 김치, 그리고 몇가지 반찬을 사서

몇몇 동료들과 함께 직접 밥을 지어 먹었다. 인수가 끝나서 돌아오는 날 까지.

첫번째 주말은 처음으로 우리가 있는 「어바인」시 근교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전원이 구경할 기회가 주어졌다. 1955년에 개설한 넓이가 700km²의 공원으로서는 그렇게 넓게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공간을 잘 활용했음은 분명했다. 개척의 나라, 모험의 나라, 미래의 나라, 환상의 나라를 부지런히 구경했다.

월요일은 광복절이었다. 그들은 전혀 알리가 없었겠지만, 우리는 미리 준비해온 태극기를 강의실에 걸어 놓고 함께 애국가를 부를 때에는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벅차움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동료들 모두가 그러했으리라. 지금도 그때의 그 분위기를, 아니 난 영원히 지워버릴 수가 없을 것이다.

두번째 주말은 「라스·베가스」와 「그랜드·캐년」을 구경했다. 북동쪽으로 약 6시간동안 사막을 달리니 드디어 「라스·베가스」의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의 밤 풍경이 시야에 들어 오자, 동료들 모두가 탄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 보기 시작했다. 사막 한 가운데에 세워진 환락의 도시 「라스·베가스」는 미국의 개척정신의 본보기였다. 각 호텔마다 있는 카지노에는 세계 도처에서 모여든 관광객들로 붐볐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도」쇼와 「MGM」쇼는 호화롭고 웅장했다.

다음날 우리는 다시 버스로 「그랜드·캐년」을 향했다. 「후버·댐」을 거쳐 약 4시간 소요되는 거리였는데 산림은 자연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었다. 13인승의 세스나 경비행기를 타고 협곡사이를 45분간 비행하는데, 멀미를 모르던 사람들도 대부분 비닐 주머니를 입에 대고 있었다. 「그랜드·캐년」의 대협곡, 그것은 자연이 만든 최대의 걸작품이었다. 협곡사이를 「콜로라도」강의 흙탕물이 흐르고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국어교과서에서 배운 천관우씨의 기행문 「그랜드·캐년」이 불현듯 생각났다. 글 재주가 없는 내가

더 이상 무어라 표현할 것인가? 웅장하고 거대한 자연의 신비스러운 예술품을.....

週中の 하루는 美國 골지의 보험회사인 「트랜스·어메리카」를 방문했다. 컴퓨터화된 각종 시스템으로 계약관계의 모든 자료가 수록되어 원하는 자료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그들의 여건이 부러웠다. 오후에는 세계적인 영화사의 하나인 「유니버살 스튜디오」를 찾아 영화촬영 과정이며 세트장을 구경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흥미를 끈것은 ET제작 과정이었다.

세번째 맞는 주말은 멕시코 접경지대인 캘리포니아주의 최남단에 위치한 「센·디에고」시의 한 보험회사를 방문한 후, 2~3명씩 조를 편성, 각 에이전트를 견학하여 대리점의 조직과 업무처리 과정등을 설명들었다. 손해보험 판매는 주로 대리점을 통한 것이며, 각 대리점은 독자적인 전산 Terminal을 갖고 있어 모든 고객에 대한 정보를 기억처리하여 계약갱신시 적정한 요율 산정등에 활용하고 있었다. 점심을 든후 우리는 Sea World의 물개 쇼를 관람하였다. 씨나리오에 의해 진행되는 코믹한 쇼는 빈틈이 하나도 없이 완벽하였다. 노천 관람석은 장충체육관 크기로서 몇개가 더 있었고, 그외 각종 어족의 수족관을 갖고 있었다. 해안을 안고 있는 「센·디에고」시는 한쪽의 산수화같은 아름다운 도시로 누구든 한번 본 사람이면 당장에 매력되어 버리는 매혹의 도시였다.

연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우리들을 위해 CPCU (Chartered Property & Casulty Underwriters) 가 베푼 New Port Inn에서의 디너·파티는 성대한 단찬이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우리들은 각자 자기의 소개와 그의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우리들은 약간 취기가 올라 있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유창한(?) 영어로 조크를 섞어가며 명연설을 하는 바람에, 예정시간보다 훨씬지나 있었고 박수와 웃음이 그치지 않았다. 특히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하계 올림픽 게임이 서울에서 개최된다는

설명에는 모두들 우뢰와 같은 박수와 환성으로 우리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대하였다. 아뵤든 그들은 일본의 연수자와 우리들을 여러 면에서 비교했으리라. 그러한 점을 예상한 우리 연수자들은 어떤 일에도 진지하고 매사에 열심히 하는 자세를 잊지 않았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 속에도 한국인의 참 모습을 다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자부한다.

마지막 주말 오전, 우리는 모든 교육의 일정을 마치고 평가시험을 치렀다. 오후에는 수료식을 가진 후 미리 준비해 온 우리나라의 관광용 영화를 보여 주었다.

한국을 떠나서 돌아 오는 날 까지 우리 일행 모두는 몸 가짐에서 부터 많은 신경을 썼다. 몇몇한 한국인의 금지를 갖고 끝까지 무사히 교육을 마치고, 보다 큰 눈을 갖고, 보다 넓은 경험과, 보다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위의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린다. *

英國 TRADA 를 둘러보고

李 德 濬

〈本協會 防災試驗所·代理〉

방재시험소 설립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영국에서 1983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2달 간에 걸쳐 화재시험 연구에 관한 연수를 받았다. 연수일정은 FIRTO(4주), FRS(2주)와 기타 관계기관 및 업체방문(2주)이었으며, 이들 기관 및 업체의 대부분은 협회 발간물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곳들이다. 그 중 유일하게 목재만 전문으로 시험·연구·개발하는 TRADA (Timber Research and Development Association)를 들